

“노조는 직원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 민노총 탈퇴 가속화

최근 몇 년간 민간-공공부문 기업들이 임차나 기업별 특성을 이유로 전국민노총조합총연맹(민노총)을 이탈해 떠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총파업을 두고 포스코 양대 노조 중 하나인 포스코지회가 기공민간 최근 3년간 잇단 민노총 탈퇴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포스코지회 '기업노조 전환 찬성' 69.93%
 “대다수 조합원 노조 조직형태 변경 원해”
 공공·민간 최근 3년간 잇단 민노총 탈퇴

포스코지회 조합원 69.93% 찬성…노조 존재 이유 조직 기득권 유지 목적 아냐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조합원 재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247명 가운데 143명(57.89%)이 참여했고 이 중 100명(69.93%)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포스코 지회는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상원단체 없는 기업형 노조로 전환한다.

한은-금감원권선사 등 잇달아 민노총 탈퇴
 사실 민노총을 탈퇴하는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부터 민간-공공부문의 기업들이 민노총을 떠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갈라선 이유는 대부분 상급단체와의 입장차 또는 기업 특성 요인이 꼽힌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찬반투표를 시행한 바 있다. 지난 10월 31일 열린 제14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올렸고 이후 진행된 투표에서 조합원 264명 중 115명(66.86%)의 찬성을 얻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투표일 7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는 금속노조의 의 제기를 수용하면서 재투표를 실시했다.

한국은행 노조는 지난 2020년 7월 상급단체인 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를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한은 노조는 지난 2016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에 가입했다. 하지만 상급단체의 방향성과 맞지 않아 4년 만에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지회는 “지회는 포스코 직원을 위해 일하고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며 “하지만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위해서 일하고 금속노조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노조도 올해 4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를 탈퇴했다. 금감원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한 이유는 보편, 증권 등 금융회사 노조와 동일 산별노조에 가입해 직원들의 독립적 감독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포스코지회의 존재 이유는 조직의 기득권 유지가 목적적이고 직원을 위한 것”이라며 “대다수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기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GS건설과 쌍용건설 노조도 지난해 10월 민노총 건설기업노조를 탈퇴했다. 두 노조는 2012년 6월 건설기업노조 창립 때부터 함께했지만 산하에 함께 있는 건설노조와 플랜트노조의 견제차가 컸던 게 탈퇴 이유로 꼽힌다.



전국민노총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화물 안전문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다는 이유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지만, 탈퇴 찬성률이 52.7%에 그쳐 부결됐다.
 전로가들은 최근 공공·민간 기업에서 민노총을 탈퇴하는 이유로 강경한 투쟁과 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 꼽는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재 파업 행태를 보면 너무 극단적인 부분이 있어 노조원은 물론 기업들도 불안이 많이 가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의해서 주장을 하는 건 좋지만 극단적인 방법 때문에 노조원들이 환멸을 느끼는 경우가 많

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산별노조가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기업마다 처한 상황도 다르다 보니 이러한 현상(민노총 탈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 화물연대 집단승거부예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돈맥경화’에 쓰러진 동원건설산업…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부동산 불황·자금융색·미분양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현 우려

“이러다 중·소형 건설사 다 죽어요. 자칫하면 2008~2009년(건설사들의 부도)을(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의 우려 섞인 말이다.

건설업계가 도산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지방건설사부터 줄도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에 있는 동원건설산업이 25일과 28일 도래한 총 22억원의 은행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를 냈다.
 전국 도급 순위 388위, 경남 내 도급순위 189위인 동원건설산업의 도산은 건설업계에 큰 충격이다.

이 회사는 자금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까지 겹치면서 프로젝트와 이앤심(PF)대출(부동산개발 관련 시공사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
 장기연 동원건설산업 대표도 부도 직후 내 입장에서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되지 않아 연 36% 시용음까지 동원해 위기를 넘겨야 했다”고 결국 높은 이자를 건디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구 근린상가 등 사업장에서 시행사가 파산해 받지 못한 공사대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532억원 중 절반만 가까운 250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동원건설산업뿐만 아니라 많은 건설사가 안고 있는 문제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아파트와 오피스빌 등에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미수금도 함께 늘고 있어서다.

“10여 년 전 건설사 연쇄 도산도 지방부터”
 건설업계는 동원건설산업 부도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원건설산업 정도면 지방에선 상당히 큰 회사”라며 “지역 하청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파산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동원건설산업처럼 부도 직전에도 쉬쉬하는 지방 건설사들이 분분 있을 것”이라며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건설사 연쇄도산 때도 시차는 지방건설사들의 부도였다. 정말 악몽이었다”며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현재로서는 건설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상황이 나쁠수록 자재사업 확장 등 공격적인 경영보다 선별 수주 등을 통해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자의 탄생과 몰락에서 배우는 투자 전략

시대를 부르고 세상을 창조했던 부자들의 일대기

옵부터 제프 베조스까지
지구상 최고 부자들의 히스토리오그래피

부자의 삶을 알아야 부의 원리를 알고 자산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부자의 역사』는 부자들의 성공만 아니라 그들이 겪은 일생의 실패와 좌절에서도 슈퍼리치의 존재 이유를 찾는다. 부자는 실패에서 성공을 발견한 전회위부의 사람이며 태생적 한계를 결함에서 진정한 성장을 일군 불체출의 위인이다. 이 책을 통해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부자들의 독특한 삶과 특유의 판단력을 들여다볼 수 있다.

저자 최홍준은 한국자산투자컨설팅 대표다. 증권업계의 젊은 기수로서 전문가 평가제를 투자 건설팀에 도입해 3년 연속 540%가 넘는 고수익률을 경신했다. 한국자산투자컨설팅은 2019년, 2020년 연속 수익률과 정보제공 서비스 부문에서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부자의 역사